



올림픽 예선 출전 女 배구대표 12명 확정

190cm 국내 최장신 양효진 첫 태극마크

대표팀 은퇴 밝힌 정대영 합류

‘발목 인대 부상’ 한송이 탈락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세계 예선(5·17~25, 일본 도쿄)에 나갈 배구 여자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 12명이 확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5일 ‘거포’ 김연경(흥국생명)과 신인 센터 양효진(현대건설·사진)을 포함한 대표팀 최종 명단 12명을 발표했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김연경과 한유미(현대건설), 임효숙(도로공사), 김민지(GS칼텍스)가 레프트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예비 엔트리 19명에 들었던 한유미의 동생 한송이(도로공사)는 발목 인대 부상 여파로 낙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인 센터 양효진의 발탁. 국내 선수 중 가장 큰 190cm인 양효진은 높이 강점에도 속공,블로킹 능력을 인정받아 전민정(흥국생명)과 이정희(KT&G) 등 선배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와 함께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혔던 ‘특급 센터’ 정대영(GS칼텍스)도 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세영(KT&G)과 함께 12명에 포함됐다. 라이트는 황연주(흥국생명)와 배유나(GS칼텍스)가 나서고 세터는 김사니(KT&G), 한수지(현대건설), 리베로는 김해란(도로공사)이 각각 맡는다.

한편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12개국 중 8개국이 가려진 가운데 올림픽 예선에서는 한국과 일본, 태국,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폴란드,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가 4장의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여자 대표팀 명단 ▲감독 = 이정철 ▲선수 △레프트 = 김연경(흥국생명) 한유미(현대건설) 김민지(GS칼텍스) 임효숙(도로공사) △라이트 = 황연주(흥국생명) 배유나(GS칼텍스) △세터 = 김사니(KT&G) 한수지(현대건설) △센터 = 김세영(KT&G) 정대영(GS칼텍스) 양효진(현대건설) △리베로 = 김해란(도로공사)

베이징올림픽 금 따면 포상금 얼마? 한국, 철인 3종 10억 내걸어

2008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명예와 함께 두둑한 포상금을 담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4 아테네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의 화끈한 당근책이 돋보인다. 그리스는 금메달리스트에게 19만유로(한화 2억 7천300만원)를 주기로 했고 은메달 13만유로, 동메달 7만유로의 포상금을 각각 책정했다.

메달리스트는 세계 제패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물론 목돈을 챙겨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얻는 셈이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 참가하는 70만 인구의 발칸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금메달 사냥시 6만달러(한화 5천700만원)를 약속했다.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도 금메달 5만달러, 은메달 3만달러, 동메달 2만달러를 선수들

그리스 2억7천300만원 러 5만달러, 중 2만유로

에게 준다. 러시아는 또 메달을 따면 포상금과 별도로 스포츠 펀드와 거대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제공하는 주택과 자동차 등 50만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보너스를 손에 넣는다.

이밖에도 아테네올림픽 7위에 올랐던 독일은 금메달 1개에 1만5천유로를 내걸었고 안방에서 종합 우승을 노리는 중국은 아테네올림픽 때 걸던 메달 포상금(금 2만유로, 은 1만1천500유로, 동 7천500유로)을 웃도는

금액을 고려하고 있다.

또 1960년 로마 대회 역대 은메달이 유일한 올림픽 메달이었던 싱가포르의 금메달리스트에게 무려 50만유로(한화 7억2천만원)의 돈 보따리를 준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는 돈 보석에 얽는 셈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도 오랜 전통을 깨고 금메달 1천4천유로, 은메달 1만유로, 동메달 7천유로의 메달 포상금을 정했고 일본도 금메달 1만9천유로를 포함한 무진한 보너스를 준비한다.

한편 한국은 메달 가능성이 적은 철인3종이 금메달에 무려 10억원 포상금을 내걸었고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체조는 금빛 연기 주인공에게 격려금 1억원을 주기로 했다.



맨체스터의 호날두(오른쪽)가 4일 올드 트래퍼드 홈 구장에서 열린 첼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리옹을 상대로 결승골을 뽑아내고 있다.

여자프로배구 KT&G, GS칼텍스 꺾고 4연패 탈출

여자 프로배구 KT&G 아리엘즈가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을 GS칼텍스를 제물로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KT&G는 5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여자부 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페르난다 베타 알비스(20점)와 국가대표 센터 김세영(11점)을 앞세워

라이트 나혜원(14점)이 분전한 GS칼텍스를 3-0(25-14 25-20 25-19)으로 꺾어냈다.

이로써 KT&G는 4연패 사슬을 끊고 17승 10패로 정규리그 2위를 확정했고 3위 GS칼텍스(13승13패)는 2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호날두 결승골... 맨유 8강행



(27)은 결장했다. 맨유는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

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홈 구장에서 열린 프랑스로 올 시즌 첫 골을 터트렸던 박지성은 후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2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풀럼전(3-0승)에서 올 시즌 첫 골을 터트렸던 박지성은 후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맨유는 첼피언스리그 홈경기 10연승으로 유벤투스(이탈리아)가 갖고 있던 이 부문 기록과 타이도 이뤘다.

지난 2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풀럼전(3-0승)에서 올 시즌 첫 골을 터트렸던 박지성은 후보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널은 지난 대회 첼피언 AC밀란(이탈리아)과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겨 8강 대열에 합류했다.

“9일 광주 개막전 무료 관람 하세요”

프로축구 상무 이벤트 마련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유치’를 기원하며 9일 성남 일화와의 홈 개막전에서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상무는 입장 관중들로부터 100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기원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개막전 상무팬사로는 태권도 시범 및 광주상무 유소년 축구클럽 2기 출범 기념행사가 마련되며, 광주 지역 축구부 육성을 위해 초·중·고 11개 학교에 축구용품을 증정하는 시간도 갖는다.

하프타임에는 태권 에어로빅 공연과 함께 광주 태권도 관장 협의회 주관으로 태권도 도장 승부차기 대회를 개최하고, 방장교·드림세탁기·영화관람관·외식권 등 다양한 경품 추첨행사도 마련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영삼 전 대통령 한국 티볼협회 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티볼협회 총재를 맡게 됐다.

티볼협회는 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달 방한했던 일본 티볼협회 회장단의 요청을 받고 총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도동을 방문한 일본 티볼협회 노시무라 다다시 회장은 공동 회장인 김기후 도시카 전 수상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전 대통령은 한국 총재직을 맡아달라는 기이후 전 수상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티볼은 야구와 소프트볼을 합친다는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된 스포츠. T자 방망이와 해 고구 재질의 공을 올려 놓고 방향대로 때리는 형태로 팀당 10명이 경기를 진행한다.

스폰서 소개 6일 (목) 09:30-NBA(디트로이트: 보스턴) (07:00-SBS스포츠) 07:00-프로농구(삼성: SK)(18:50-SBS스포츠·XSPORTS) 07:00-V리그 남자부(현대캐피탈: 상무)(18:30-KBS N SPORTS)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첨단중심상업중개사 ★급매매★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심. 완도개인독선

금보부동산컨설팅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 전문회사